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1(土)

2/1(日)



#### News

- 여수엑스포 지원 76개 사업 ②
- 살해된 여성 7명은 누구 ③
- 지성 영표 이란전 특명 ⑭

#### Books

- 상위 1% 성공·부 비결 ⑧

#### Entertainment

- 돌아온 최양락 이봉원 ⑦



- '스릴러' 영화 불꽃 대결 ⑩

#### Wellbeing

- 스트레스 풀고 삽시다 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7명 모두 내가 죽였다”

### 군포 살인 피의자 강호순 자백

#### 시신 4구 추가 발굴

연쇄 살인범 강호순(38)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 사이에 경기서남부지역에서 실종된 부녀자 7명을 모두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강은 경찰에서 범행 동기를 2005년 부인 사망 이후 여자들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여성들에게 성관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대부분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군포 여대생 A(21)씨 살인강도 혐의



로 구속한 강이 DNA 대조 끝에 수원의 실종 주부 김모(48)씨 살해 사

를 추가 자백한 뒤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말이 통하는 형사를 불러달라고 해 대면시키자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7명 가운데 2007년 5월 8일 노래방도우미 박모(당시 37세)씨와 지난 25일 군포 여대생 A씨의 시신이 발견, 또는 발굴된 데 이어 경찰은 이날 나머지 5명의 시신 가운데 2007년 안양에서 실종된 노래방도우미 김모(당시 37세)를 제외한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 씨의 시신 매장 장소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발굴에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연남뉴스>

## 北 “남북 정치·군사 합의 무효”

### NLL 조항도 폐기 일방 선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준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했다.

정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 행안부장관 이달곤

#### 지경부 2차관 김영학씨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달곤(사진)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신분만 국회의원이지 평생을 학자로 산 분”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전문가로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의 성격이 워낙 강하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 2면>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과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거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나라당 대표 특보를 맡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2차관 후임으로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임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는 2월 24일 광주 유일의 성인 학력인정 고등학교인 대신고에서 졸업장을 받게 되는 늦깎이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빈 교장, 선병주·조안용·정일심·박옥남·조영조·이상복씨, 박종연 교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거짓으로 적었던 학력난 이젠 高卒이라 쓸 수 있어”

### 광주 유일 '성인 고등학교' 대신고 첫 졸업생 배출

“가슴에 맺혀 있던 배움의 한을 이제야 풀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8시 광주시 서구 매월동 광주 대신고등학교 3학년6반 교실. 30여명의 늦깎이 고교생들이 영어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때를 놓쳐 배움에 목말라하던 반백의 고교생들이 ‘만학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광주 대신고는 성인들이 다니는 2년제(1년 3학기) 학력인정 고등학교다. 2007년 3월 입학한 이들은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2월24일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된다.

6만 실장인 이상복(53)씨는 “영양 기회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녀보고 싶고 갖고 싶었던 고교 졸업장을 뽐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씨가 늦은 나이에 고교 문을 두드린 것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실태 조사서에 ‘고졸’이라고 본의 아니게 거짓으로 답하게 되는 것이 부끄러워졌던 것이다. 이씨는 “이제 자

식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워 이제 채팅도 한다는 정일심(58·여)씨는 “못배운 게 두고 두고 한이 될까 봐 만학의 길을 택하게 됐다”며 “여고생이 되고 보니 즐겁고 행복하다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환하게 웃었다. 정씨는 “대학 나온 아들이 더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는 3월 송원대학 사회복지과에서 배움의 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모두 236명. 고교 중퇴후 다시 편입한 일부 10대들을 빼고는 대부분 50~60대 장년층이다. 철수를 넘긴 할머니 여고생(73세)도 있다.

부모를 여읜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지독하게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 중에는 광역의회 의원, 중견 건설사 사장, 공무원, 주부, 스님,

목사 등 직업도 다양하다. 부부, 남매 만학도도 있다.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여고생의 꿈을 접어야 했다는 박옥남(51)씨는 “자녀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아직 집에서 쉬고 있는 얼마·아빠들께 대신고의 문을 두드리라”고 용기를 북돋아줬다. 그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대신고의 피에로’ 조안용(44)씨는 “공부도 공부지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더 좋다. 친구는 돈 주고도 못 산다”며 사회 선배들을 급우로 뒀다. 조씨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기쁘다. 이들이 모교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이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제 때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가고 있는 만학도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며 용기를 내 가슴 속 배움의 불씨를 지피라고 손짓했다. 입학 문의 (062)376-84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국가산단은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 합니다."

EXPO 2012  
Yeosu Korea